

# 세 가지 치유를 위한 도전 -복음으로 여는 데살로니가전서-

이사야 40:27-31, 데살로니가전서 5:23-25

정운돈 목사님

## 서론 : 데살로니가전서 개관

(1) [데살로니가의 역사]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다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다. 마케도니아(마케도니아 Macedonia)의 항구 도시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마케도니아를 가장 강성하게 만든,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 인물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필립 Phillip)2세의 이름을 딴 도시가 바로 빌립보다. 이 필립 대왕은 한쪽 눈이 없었다. 젊었을 때 포로로 끌려간 경험까지 있었다. 나라가 너무 약하니가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한을 가지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리라 한 것이다. 공부하고 경험도 쌓고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남쪽으로 가서 아가야(아가이아 Achaia) 지역의 아테네(Athene)까지 정복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전쟁 뿐 아니라 철학에도 뛰어난 인물로 세우려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붙였다. 그 결과 그 아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 그 후 헬라 문화가 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데살로니카 Thessalonica)로 내려갔는데,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다. 데살로니가는 필립 2세의 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이 지역을 정복한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필립 2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이름을 붙인 것이다.

(2) [데살로니가교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결과,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가게 하셨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 간 것 아닌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던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아손 같은 인물이 복음을 받았는데 첫날부터 열정적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다. 처음 은혜를 받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가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이다. 야손을 비롯해 중요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거나, 바울은 그들을 피해 베뢰아를 거쳐 아헨까지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불과 3주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제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교회를 돕게 한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디모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교회 사람들이, 그러나 새신자였던 만큼, 신앙생활을 과연 잘 하고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교회에서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를 들으니, 걱정했던 것을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쁨과 함께 새신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써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교회다.

(3) [데살로니가전서의 의의] 신약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무엇일까? 신학자들은 대부분 데살로니가전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새가족에게는 사복음서도, 요한 일서도 어렵다. 영지주의를 알아야 하고, 성경의 여러 개념과 용어를 이해하고 봐야 한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면 빨리 제자화가 된다. 상황이 같기 때문이다. 새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전서이기 때문이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보이고, 교회 안의 고민거리가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믿을 때의 순수한 믿음,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첫 사랑, 첫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와 같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도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일 앞에 장로님 한 분이 앉아 있었다. 아주 굳은 얼굴로 메시지를 듣는데, 잘 듣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분이 제출한 자기 무의식 상태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니가 너무 순수한 제자였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장로님이 완전 제자였던 것이다. 첫사랑, 순수한 믿음을 주님 만날 때까지 변치 않게 하기를 바란다. 바울, 디모데, 실라가 복음에 대해 열정을 낸 제자였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을 만났던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제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제주도 가서 제자를 만났지 않나. 문이 많이 열리니까 도와줄 사람이 많다. 이들을 제주도에 두고 온 게 마음이 걸리니까, 우리 권사님을 한 분 정도 파송해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다. 거기에서 캠프를 하고 돌아온 전도팀들은 계속 현장에서 캠프를 하고 있다. 맛을 봤기 때문이다. 복음에 결론 낸 만큼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신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지적,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했다. 아무 것도 모자란 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 누가 과연 복음을 받았는가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숨겨진 제자들이 있었다. 일본 같은 현상이 그렇다. 다 풍요하지만 교회가 없다. 이것을 보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마음에 중심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문을 계속 여실 것이다. 이종우 선교사님은 나고야 안에만 지교 회당을 12군데 세웠다. 새로운 현장에 가면 그 지역에 숨겨진 제자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현장 가서 계속 캠프를 할 텐데, 가서 여러분이 제자를 찾게 되기를 바란다. 바울은 전 세계를 계속 순회하며 교회를 세웠다.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서는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난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새로운 현장에서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오면, 우리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데살로니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전반부에서는 데살로니가교회를 칭찬하면서, 후반부에서는 데살로니가교회에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교회에 대한 칭찬이다. 데살로니가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

는 교회였다. 다른 여러 교회들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는 칭찬 일색이다. 어떤 교회였길래 칭찬을 했겠는가?

- (1) 데살로니가전서 1:3을 보면, 데살로니가교회의 신앙의 색깔이 나온다.
  - ① 믿음의 역사라고 했다.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확실한 믿음이 중요하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에 억지로 가야 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정권 교수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 4년 동안 점심시간마다 같이 기도하고 성경공부하면서 전도했다. 그분이 전도 대상으로 경영학과 교수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복음을 말해도 들은 채 하지 않으면서 딴 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을 두고 같이 기도했는데 내가 만나게 되었다. “교수님, 두 가지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주의 끝이 있습니까?” 모른다는 것이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했다. 며칠 후에 만났더니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더라. 나중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를 끼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다. 결론 난 신앙인이 아니다.
  - ② 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된다.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피곤하지 않다. 너무 기쁘게 한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이다. 교회 일을 하면서 피곤하고 힘든 것은 사랑의 수고가 아니어서 그렇다.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찬양했다. 사랑의 수고였기 때문이다.
  - ③ 우리 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죽을 앞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중국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할 때, 그 속에서 기적적으로 전도하던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 “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오히려 물더라. “우리는 핍박받으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풍요로운데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핍박 속에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 (2) 데살로니가교회에는 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5을 보니까, “이 큰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 것임이라.” 저지난주 설교 이후 말씀 성취가 놀랄 정도로 일어났다. 내가 설교했는데 내가 놀랄 정도였다. 말로 다 간증을 할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그 성취된 메시지를 보게 되면 큰 확신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 날마다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큰 확신이 점점 더 커지게 되기를 축원한다.
- (3) 데살로니가 1:6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큰 기쁨으로 말씀을 은혜롭게 받았을 뿐 아니라,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서 힘썼다고 했다. 새가족이었는데 믿음의 색깔이 이러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것이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저러냐 하는 것은 그게 잘못되어서 그렇다. 나는 초등학교 때가 그렇다. 중고생 때, 대학생 때, 청년의 때, 12가지 펜을 가지고 색깔을 해 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그렇다. 그 기쁨을 램프트 때에 놓치지 마라. 그것이 평생 여러분을 이끌어 준다. 열마의 지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미로를 위한 준비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청소년 때 예배에 성공하라.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램프트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복음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온전히 따라올 것이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조금 문제가 있는가? 많은 환난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청소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동안 우리 집안은 점점 가난해졌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다.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응답으로 변화되었다. 어떤 탤런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힘들어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위를 바라봐라.” 엄마도 똑같이 말하더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역사하실 거야.” 정말 자기가 인정한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응답 안 받아도 된다. 응답을 받고 잘 될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은 쉽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렵다. 후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 (4) 이 믿음의 소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각지로 퍼져서 모든 믿는 성도의 본이 되었다.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빛이 되시기를 바란다. 살리는 말,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부흥되게 된다.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한다. 그게 데살로니가교회였다. 데살로니가 1:7-8을 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무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할 말이 없다.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누러라. 약간만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 청년이 예수 믿고 나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이, “너 이상해졌다.” 그런데 그게 잘못 이상해진 게 아니라 너무 좋아졌다라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열 잔 마시던 술을 아홉 잔 마시는 정도만 변화되어도 대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술 마시는 것과 지옥, 천국은 상관 없다. 그러나 내 삶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않나. 마약, 술, 도박에 의존하면 결국 불행해진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사는 길이다.
- (5) 데살로니가교회가 응답받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2:13을 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

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았다. 약간 틀리게 붙잡았다. 이렇게 되니까 사단이 틈난 것이다. 사단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속였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감히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바보여서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다. 여러분은 평정히 지혜롭고 수준이 높은 분들이다.

## 2.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도전 미션

바울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미션을 데살로니가교회에 전달하고 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의 내용이다.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연약하고 믿을 없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를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야’ 하고 말해줘야 한다. 그러나 사명자에게는 미션을 줘야 한다. 그래서 62가지나 되는 미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20년 동안 전도운동을 했는데, 복음운동과 훈련 속에서 지금 굉장한 서밋들이 일어나고 있다. 규모, 삶 면에서 서밋이 되도록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우리 후대가 세계를 정복하고 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인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1) 첫째로, 디모데전서 3:8에 보면, 지속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게 서기를 권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우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목사님들의 마음은 그렇다. 성도들이 흔들리면,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한 것인가?’ 걱정이 된다. 그런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굳게 서면 오히려 힘이 난다. 여러분이 오히려 목회자, 사역자를 살리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어떤 권사님이 염려, 근심이 많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남편 분은 신앙도 없는 분인데, 옆에 누워서 한 마디를 하더라는 것이다. “여보, 하나님을 믿으세요.” 너무 걱정하니까 한 소리를 한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뿌리를 내려야 한다. 깊이 내려야 한다. 구원의 확신에 깊은 뿌리를 내려라. 기둥을 굳게 하라. 나는 궁극한 것을 못 잡아서, 제2롯데월드 타워를 세울 때 보고 왔다. 기초를 얼마나 깊이 파는지 모른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더라. 절대 안 무너진다. 그 공사 광경을 안 본 사람은 의심할 수 있다.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떤 문제, 어떤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1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전도, 오직 복음운동을 위해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더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몸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오해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일이 아닌가. 영원한 일에 24시간 힘쓰시기 바란다. 그러면 25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영원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결론나면 절대 제자를 세울 수 있게 된다.

(3)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다. 세상적인 것의 대표적인 예시 아닌가. 데살로니가 4:3-8을 보라. 음란을 버리라고 했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라고 했다.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간다. 타락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평언을 남겼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재미있다.” (웃음) 그게 다 이 땅의 일이다. 몸에 안 좋은 것은 다 맛있다. (웃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 속에 있는 참된 것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체질이 바뀌는 것이다. 김경권 교수님의 강중이다. 자신은 하루에 두 갑씩 담배를 피웠는데, 너무 끊어지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취방에서 하루는 고백했다고 한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담배는 절대 못 끊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다. 자기가 담배를 안 피우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삼아 담배를 일부러 사서 피워 보니까 도저히 못 피우겠더라는 것이다. 꼭 담배 끊어서 성령충만한 것은 아니지만, 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필요가 없어 버려야 한다. 안 하려고 노력해서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마약도 도박도 그렇다. 마약치유센터를 담당하는 을지대학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고민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마약을 완전히 끊게 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선생님이라고 안 된다. 그러니까 같으면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센터에서는 마약환자가 많이 치유되고 있다. 가장 어려운 것도 복음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4) 자기의 일과 직업에 힘쓰라고 했다. 기능서밋이 되기 위한 당연한 것이다. 과거에는 성직자만이 천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칼뱅은 직업 소명설을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전부 천명이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데살로니가 4:11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누리면서 기능의 서밋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란다.

(5) 죽은 자들의 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다(살전4:13-18).

(6) 말세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6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술 취하지 않다’는 말이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망을 본다, 지켜본다, 경계한다’는 말이다.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깨어서, 우리 자신도 지키고 후대도 지키고 성도도 지키는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란다.

(7) 데살로니가전서 5:12-15에, 교회 생활과 치유사역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치유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한다. 정신적, 가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다. 우리가 계속 치유 서밋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일단 메시지 흐름을 잘 타야 한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14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여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치유사역자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사역을 하다 보면 문제도 많을 수 있다. 이 연약을 먼저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사역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

(8) 그 다음을 보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절대 제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다. 류목사님은 이 부분을 제자훈련의 마지막이라고 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18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절대 제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문제 앞에서 웃으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9) 데살로니가전서 5:19-22은 성령충만한 사역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충만받고 성령인도를 받으려면 이 연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10) 바울은 성도들의 절대 목표를 말씀하고 있다. 그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을 정도로 보전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23을 보면, 우리의 절대 목표다. 그리스도인, 사역자, 절대 제자들의 절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영적 서밋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성취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23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한다.

## 결론 :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미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계속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미션을 드리고자 한다.

(1)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결론내고 절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오래 믿는다고 좋은 신앙을 갖는 게 아니다. 오래 믿지 않았어도 집중했을 때, 우리가 집중훈련을 계속 할 것이다. 집중해서 정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한다. 나도 메시지를 받을 때 집중해서 메시지를 다 적는다. 집중해서 기록한다. 그때 내 영혼이 새로워진다.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르다. 여러분, 쓸데 없는 영상 보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은 기도수첩 말씀에 집중해서, 나의 말씀, 나의 것을 찾아내라. 그래서 나의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현황으로 피송 되시기를 축원한다.

(2)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거룩하게 보전하기 위한 삶을 살도록 도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다. 이 모든 힘이 전부 복음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 축복을 누리는 속에서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받아가시기 바란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을 한 가지씩 세워나가고 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모델을 계속 세워 나가실 것이다.

(3)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할 정도로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더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영당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공부 영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 말씀이 맞더라. 내가 오래 앉아있었는데 잠만 잔 적이 많아서. (웃음) 학문도, 공부도, 열정이 일어나야 할 수 있다. 전도도 신앙생활도 복음화도 제자양육도 마찬가지다. 우리 안에 후대를 양육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열정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축원한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최고 가치인 그리스도로 결론을 빨리 내리고, 데살로니가교회처럼 세 가지 치유를 계속 도전해서, 세계복음화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주께서 불러 주셔서,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제자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교회를 능가하는 칭찬 받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며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델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먼저 그 주역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